

편집 및 발행인 : 김종덕 · 발행처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
총괄 : 최나영환 감수 : 길광수 전화번호 : 051-797-4770 · E-mail : chnayoung@kmi.re.kr / kdong@kmi.re.kr

Contents

● 국제물류 통계

- 유럽발 미국행 항공화물 운임지수,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공행진 지속

● 미주·중남미 물류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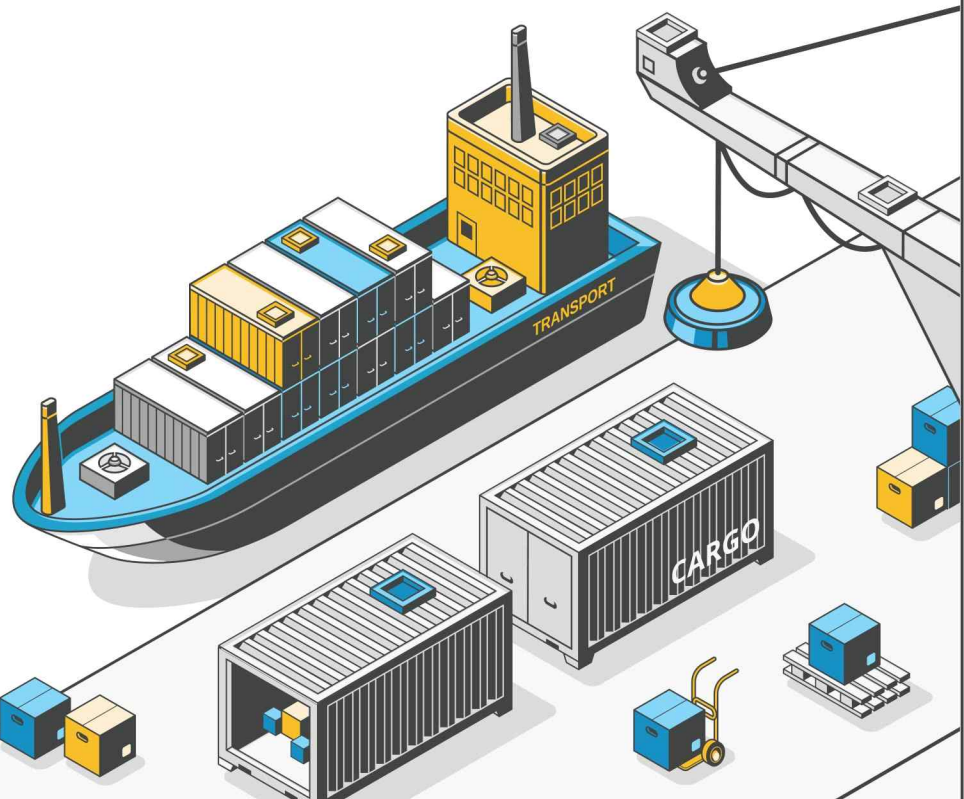
- 미 반도체 지원법 의회 통과
- 미국, 신규 '컨' 경과보관료와 반환지체료 규칙 적용

● 유럽 물류시장 동향

- CMA CGM, GEFCO와 Ceva Logistics 통합 추진
- METRANS, 슬로바키아-터키 직항 철도 노선 개통

● 공지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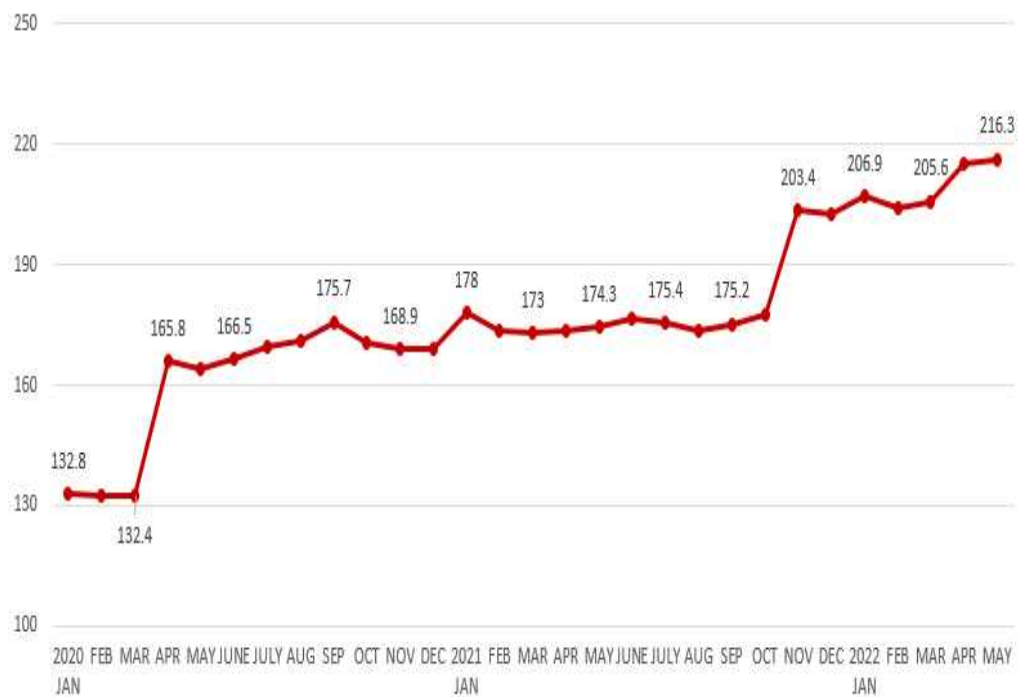
- 2022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
- 2022년 우수물류기업 인증제 모집 공고
- “국제물류 정보포털”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



유럽발 미국행 항공화물 운임지수,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공행진 지속

- 미국노동 통계국¹⁾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럽발 미국행 항공화물 운임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²⁾
 - 유럽발 미국행 항공화물 운임지수는 2020년 3월 132.4(2003년 12월 100기준)에서 지난 5월 216.3으로 약 63.4% 상승함
 - 이러한 운임지수의 지속적 상승은 물가상승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최근 러시아발 우크라이나나 전쟁에 따른 유럽 지역의 항만적체현상으로 인한 항공화물 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

유럽발 미국행 항공화물 운임지수(2020년 1월-2022년 5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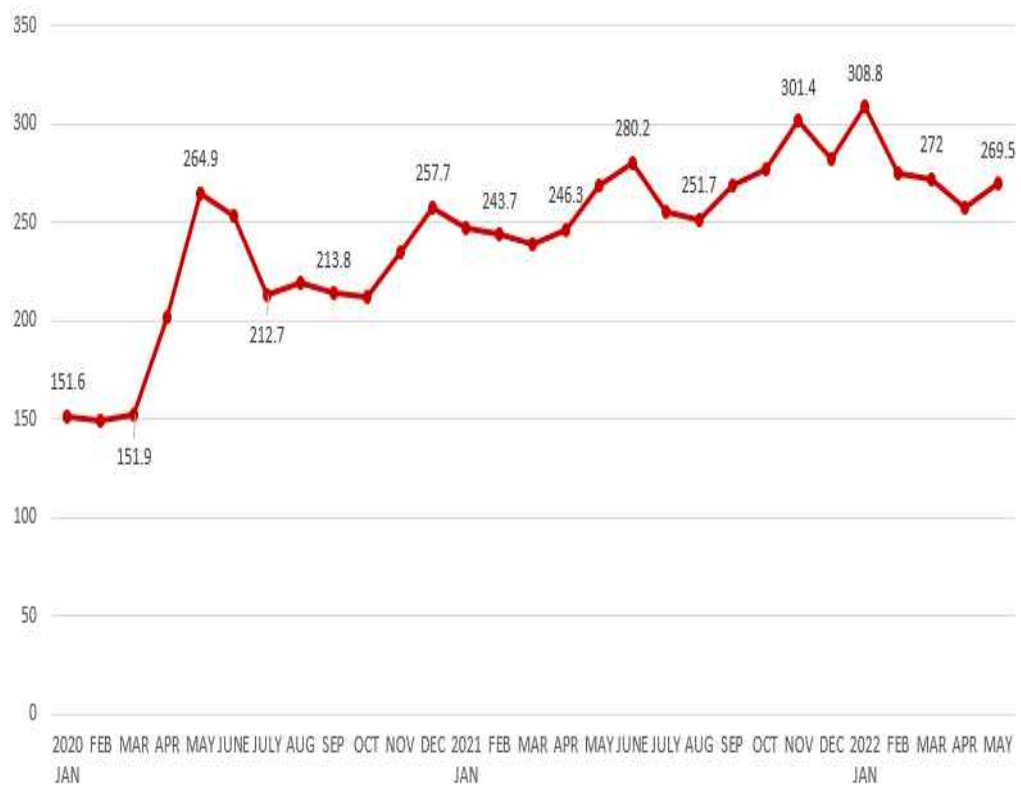
자료 : www.gscintell.com, (검색일 : 2022.8.2.)

1) 미국 노동 통계국(Bureau of Labor Statistics · BLS)에서는 매달 미국발 항공화물 운임지수를 발표함
 2) 지난 638호 국제물류 위클리에서 미국발 유럽행 항공화물 운임지수를 살펴본 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유럽발 미국행 항공화물 운임지수를 살펴봄

▶ 한편, 아시아발 미국행 항공화물 운임지수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등했으나 지난 1월 고점을 기록한 후 차츰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

- 아시아발 미국행 항공화물 운임지수는 2020년 3월 151.9에서 금년 1월 308.8로 2년여의 기간 동안 약 103.3% 증가함
- 그러나 아시아발 미국행 항공화물 운임지수는 지난 5월 269.5를 기록하며 고점 대비 약 12.8% 감소해 일부 안정화되는 것으로 판단됨

아시아발 미국행 항공화물 운임지수(2020년 1월-2022년 5월)



자료 : www.gscintell.com, (검색일 : 2022.8.2.)

자료 : www.gscintell.com, (검색일 : 2022.8.2.)

미 반도체 지원법 의회 통과

- ▶ 지난주 7월 28일 미 상원은 중국이 제기하는 경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산업 정책을 확대하는 초당적 수용의 일환으로 현대 기술에 중요한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2,800억 달러 법안을 승인했음
- ▶ 이번 투표 결과는 코로나19가 주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아시아의 반도체 공급에 차질을 빚었을 때 제기된 중국의 기술 및 경제 부상에 대해 미국이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미국 내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
- ▶ 이에 통과된 법안에 포함된 반도체 및 과학법(CHIPS and Science Act of 2022)은 반도체 제조시설의 건설 및 확장 관련 프로그램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에 520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임(세금 인센티브 250억 달러 별도)

 -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에 390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비롯(투자세액 공제율 25% 적용 별도)하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관련 분야 110억 달러, 국방 관련 반도체칩 제조 분야 20억 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520(세액공제 약 250억 달러 별도)억 달러가 지원됨
 - WSJ은 이 법안이 보조금과 세액공제로 약 770억 달러(약 100조 원)를 제공하는 등 한꺼번에 거액을 지원하는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세계적으로 이미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넘쳐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
- ▶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업계의 설비투자는 1천 530억 달러 상당으로, 5년 전의 2배 수준으로 늘었음
- ▶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수십 년간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과 규제 혜택을 제공해왔고, 추가 지원도 계획하고 있으며 중국은 2030년까지 반도체 분야에 1천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했음
- ▶ 아울러 WSJ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의 인텔을 비롯해 TSMC와 삼성전자 등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음
- ▶ 백악관이 작성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사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약 80%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4개국이 차지하고 있음

 -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에서 한국 28%, 일본 16%, 중국 12%를 차지하고 있음

-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"미국의 반도체 공급사슬이 더욱 회복탄력성을 갖추게 되었으며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에 대해 결코 외국에 의존하지 않을 것"이라고 언급했음

WSJ에 게재된 미국 내 반도체칩 제조산업에 동참하는 삼성전자 관련 동영상



자료: WSJ, 'Senate Approves \$280 Billion Bill to Boost U.S. Chip Making, Technology (2022.7.27.)

미국, 신규 '컨'경과보관료와 반환지체료 규칙 적용

- 조 바이든 대통령이 OSAR 2022 법안에 서명하면서 FMC의 업무 범위가 확대됨

 - 외항해운개혁법 2022(OSAR 2022)이 통과됐으며, 약 23년만에 미국 해운법이 개정됨
 - 미국은 본 개정을 통해 해운산업 감독기관인 미 연방해사위원회(FMC: Federal Maritime Commission)의 권한을 강화함
- FMC는 OSAR 2022 중 경과보관료와 반환지체료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적용함

 - FMC는 2022년 6월 16일부터 경과보관료(Demurrage)와 반환지체료(Detention)에 대한 법률 발효를 고시하고 바로 반영에 들어감
 - 인보이스 발행 시 경과보관료와 반환지체료에 대한 적용이 즉시 이행된다는 점이 특징임
- 6월 16일, 새 법안 발표 후 상업송장에는 경과보관료와 반환지체료에 관한 아래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

 -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있는 날짜(Date that container is made available.)
 - 양륙지(The port of discharge.)
 - 컨테이너 넘버(The container number or numbers.)
 - 수출의 경우, 가장 빠른 반납 날짜(For exported shipments, the earliest return date.)
 - 허용된 무료 장치 일수(The allowed free time in days.)
 - 일일 요율 기반의 적용되는 경과보관료와 반환지체료(The applicable detention or demurrage rule on which the daily rate is based.)
 - 적용가능한 요율(The applicable rate or rates per the applicable rule.)
 - 총 금액(The total amount due.)
 - 이메일, 전화번호 혹은 연락가능 정보(The email, telephone number, or other appropriate contact information for questions or requests for mitigation of fees.)
 - 경과보관료와 반환지체료 부과가 FMC 규칙과 일치한다는 진술(A statement that the charges are consistent with any of Federal Maritime Commission rules with respect to detention and demurrage.)
 - 운송업체의 실적이 송장 요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진술(A statement that the common carrier's performance did not cause or contribute to the underlying invoiced charges.)
- 미국의 새 법안은 미국 내 규제 및 통제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

참고자료: www.seatrade-maritime.com, (검색일 : 2022.8.1.)

CMA CGM, GEFCO와 Ceva Logistics 통합 추진

- CMA CGM이 지난 4월 인수한 프랑스 물류기업 GEFCO와 CEVA Logistics와의 통합을 통해 해운과 물류의 공급망 통합에 적극 나서고 있음
 - CMA CGM은 지난 4월 러시아 철도청(Russian Railways)과 글로벌 자동차 제조기업 Stellantis가 보유한 GEFCO의 지분을 100% 인수함
 - GEFCO는 러-우크라 전쟁에 따른 러시아 제재 지속으로 러시아 철도청이 보유한 지분의 75%를 다시 매입 후 이를 CMA CGM에 매각했으며, Stellantis 또한 GEFCO의 지분 25%를 모두 매각함
 - CMA CGM은 그룹 내 물류자회사 Ceva Logistics와 GEFCO의 통합 추진을 통해 물류솔루션의 제공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등 자체 공급망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
- CMA CGM이 추진 중인 물류기업 통합의 핵심은 글로벌 시장 내 물류서비스 강화뿐만 아니라 유럽시장 내 완성차 운송시장의 점유율 증대임
 - CMA CGM은 지난 2019년 인수한 Ceva Logistics에 GEFCO를 통합하면 유럽시장 내 완성차 운송 능력이 제고되어 점유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 - GEFCO는 완성차 운송 전문 물류기업으로 유럽 전역에 걸쳐 3,000개 이상의 철도 화차 및 약 30개에 달하는 물류거점을 보유하고 있음
 - 또한 완성차 운송뿐만 아니라 소비재, 하이테크 및 에너지·석유화학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

GEFCO 및 Ceva Logistics 통합



자료 : www.automotivelogistics.media, (검색일 : 2022.8.3.)

- ▶ 유럽 완성차 운송시장은 코로나19 이후 트럭 운송기사 및 차량 운송장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CMA CGM은 GEFCO와 CEVA Logistics 통합을 통해 자사의 물류솔루션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
 - 유럽 완성차 운송시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일부 기업의 점유율이 증대되고 있으며, 트럭 운송기사를 비롯한 운송인프라 보유가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
 - CMA CGM 그룹 CEO는 GEFCO 인수 및 통합 추진을 통해 향후 공급망 솔루션 제공 범위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힘

METRANS, 슬로바키아-터키 직항 철도 노선 개통

- METRANS가 슬로바키아 Dunajska Streda 터미널과 터키 서부 이스탄불의 Halkali 터미널을 잇는 철도 노선을 개통시킴

- 본 서비스는 2022년 9월 3일부터 전격 운행될 예정이며,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를 경유할 예정임
- Dunajska Streda-Halkali 서비스는 주 2회 운행할 예정으로 열차는 수요일과 토요일에 양 터미널에서 출발할 예정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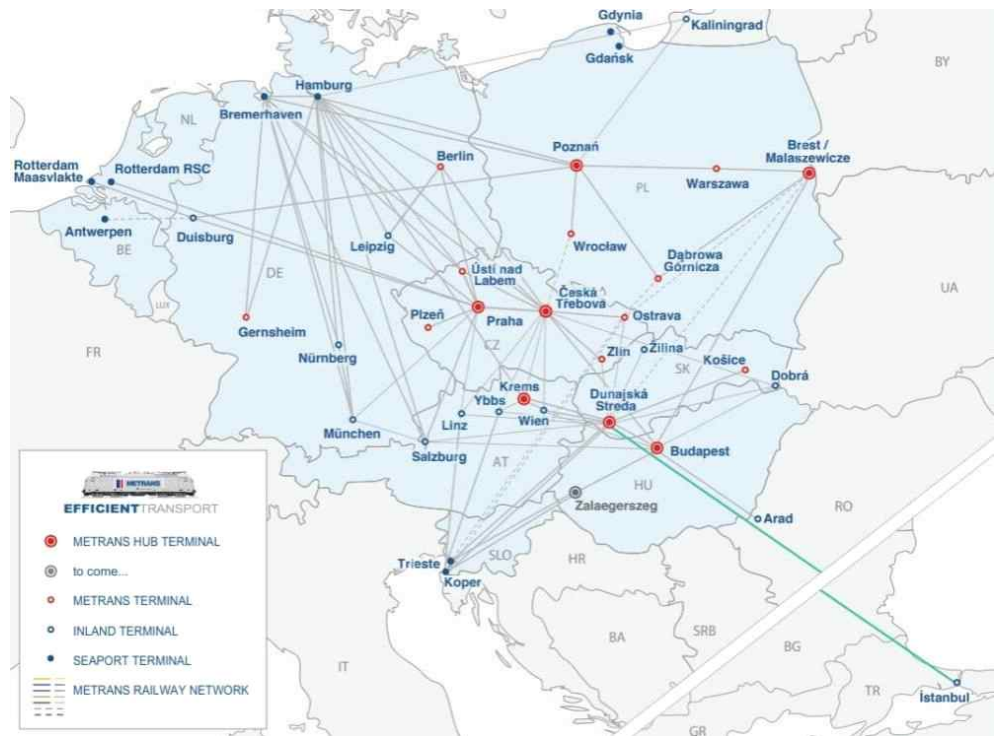
Dunajska Streda-Halkali 노선 운행 일정

HUB TERMINAL Dunajska Streda -----> TERMINAL Halkali			
HUB TERMINAL Dunajska Streda	departures	TERMINAL Halkali	arrival
	Wednesday		Tuesday
	Saturday		Friday

HUB TERMINAL Halkali -----> TERMINAL Dunajska Streda			
TERMINAL HALKALI	departures	HUB TERMINAL Dunajska Streda	arrival
	Wednesday		Tuesday
	Saturday		Friday

자료 : www.metrans.eu (검색일: 2022.8.3.)

- 본 서비스를 통해 터키와 슬로바키아 간의 컨테이너 운송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독일, 오스트리아, 체코, 폴란드, 슬로바키아, 헝가리 등에서 METRANS의 네트워크간 상호 연결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
- Halkali 터미널은 1년 넘게 터키의 물류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본 터미널은 이스탄불의 서쪽 외곽에 위치해 있어 터키와 유럽 사이를 연결하는 주 관문임

METRANS 터미널 네트워크 간 연결

 자료 : www.metrans.eu, (검색일 : 2022.8.3.)

2022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

2022년
해외물류시장
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

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 지원,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
국내 화주·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활성화 및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 조성을 위해
“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본 사업의 세부사업인
「해운·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」과 「화주·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」을
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
■ 모집기간

2022년 6월 23일(목) 09:00 ~ 8월 4일(목) 18:00

■ 사업대상

1) 해운·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

- 국내 기업의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·분석 지원
-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, 전문 컨설팅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 조사(경제, 기술, 재무, 법률 등)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
-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 조사비용의 50% 보조

2) 화주·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

- 화주·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조달, 생산, 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 진단·분석·설계, 시장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 지원
- 최대 4천만원 한도 내 컨설팅 비용의 50% 보조

■ 제출방법

한국해양수산개발원(www.kmi.re.kr)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
국제물류 정보포털(withlogis.co.kr)에서 공고문 확인 및 양식을
다운받아 이메일 제출

■ 문의처

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- 최나영환 센터장 051-797-4770, chnayoung@kmi.re.kr
- 김동환 연구원 051-797-4913, kdong@kmi.re.kr

▶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
온라인 사업설명회

YouTube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실시
www.youtube.com/watch?v=g1NNUz8iYQY

2022년 우수물류기업 인증제 모집 공고



2022 우수물류기업 인증 모집 공고 (항만구역 내 물류창고업)

신청기간

2022. 6. 13.(월) 09:00 ~
2022. 9. 2.(금) 18:00

신청자격

-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38조 및 「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(항만구역 내 물류창고기업)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
- 「항만법」 제2조제4호 및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
- 「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2조 관련 별표 제2호 중 다음 요건을 갖춘 자

인증기준 및 절차

- 배점 및 평가기준 등은 「우수물류기업 인증요령」 제9조 인증평가의 기준 및 「2022년도 우수물류기업 인증 심사항목 체계 및 심사 절차」에 따름
- 최종 결과발표(예정) : 2022년 12월 중

유의사항

- 선정결과 발표 이후,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의 위조·변조, 허위 기재 등 부정행위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음
-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
-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로 문의 요망

신청방법 및 신청 수수료

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(www.kmi.re.kr, 공지사항)에서 인증 신청서 및 관련 문서 양식을 다운로드 작성하고,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

제출방법

- E-mail 접수(아래주소 참조)

신청 수수료 납부

- 신규 인증 : 300만원, 정기점검 : 150만원
- 납부 계좌: 서류 제출시 아래 문의처에 별도 문의

문의처

-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- 주소 : 49111,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(동삼동)
- 담당 : 김동환 전문연구원(051-797-4913, kdong@kmi.re.kr)

제출서류

-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1부
-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
- 사업자등록증(사본) 1부
- 물류창고업등록증(사본) 1부
- 공적서를 제외한 제출서류 각 1부

우수물류기업 인증 현황

2021 우수국제물류(주)	2020 (주)디엔비로지스틱스	2019 비아이디씨(주)	2018 (주)비엔피로지스틱스
2017 (주)대평	2016 동원로엑스(주)	2014 (주)C&S국제물류센터, 캄트로지스부산(주)	



『국제물류 정보포탈』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



친구 추가 방법

1. 카카오톡 메인화면
상단 친구 검색



2. '국제물류 정보포탈'
검색



3. 친구추가 버튼

